

도서출판 여시아문 :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동 309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마음속 등근 달보다 더 밝은 달이 있으랴

뜻깊은 추석, 현대불교신문사가 추천하는
★큰스님 법문★ 신간 안내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 을 찾아라!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뜨거운 불길 속에서 청정한 연꽃이 피는 법현 스님의 법어, 임제선의 법맥을 정통 계승한 법현 스님의 사자후!

- ▶ 연꽃은 그 뿌리가 진흙탕을 떠나 있지 않으면서 진흙탕을 초월하여 항상 청정하듯이 우리의 본래 마음도 욕경(慾境)에 살면서 욕심이 없고 티끌 속에 살면서 티끌을 벗어남이 마치 지 연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경계에 대해서도 빈 마음이 한결같이 현결하면 원만무여한 법계의 실상을 보게 된다.
- ▶ 우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나타나는 여섯 가지 경계가 모두 거울 가운데 비치는 영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줄을 알아버리면 짐작이 떨어질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거울 속의 물건인 줄을 안다면, 누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탐을 내겠는가. 이렇게 본래 자기 마음의 거울을 한 번 보게 되면 물 밑에서 헤엄치는 고기도 마음의 거울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요,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하는 새도 현묘한 마음의 거울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든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하는 새든 모두 자기 마음의 거울에 나타난 소식일 뿐이다. 털끝만큼이라도 이 마음의 거울을 떠나 있는, 마음의 거울 밖의 소식이 아니다.
- ▶ 자성의 보배달을 얻게 되면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하는 데 무공무전하게 써도 다함이 없을 뿐 아니라, 금강보검을 높이 잡고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밝음이 오면 밝음을 지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지니 하늘과 땅을 쓸어버리고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데서 일체법의 근원인 일체의 마음이 끊어져 버린다. 이 일체의 마음이 끊어진 것을 대무심지(大無心地)라 하고 대무심지에서 자유자재한 용(用)이 나오는 것이니 마음 밖으로 드러난 지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우리 자신의 본래면목에는 티끌 하나라도 걸 수 없다. 우리의 본래면목은 의식이나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이 아닌 것이며, 이는 마치 영화 스크린이 필름에서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장면이 아닌 것과 같다.

법현 스님 /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6,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핵심에는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스님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선사,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의 핵심.

- ▶ 화두를 참구할 때 과감한 도전과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신심(大信心), 대분심(大信心), 대의심(大疑心), 간절(懇切), 굳건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과 허공을 부수어 버리는 큰 의지력이 있어야 간단(簡斷)없이 화두 참구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 ▶ 달나라에 가기 위해 발사한 로켓이 비행할 때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많은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무중력 상태에 돌입하면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 없이 무중력상태의 진공상태에서 무애자재하게 마음대로 떠다닐 수 있듯이 화두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생의 오온(五蘊), 육근(六根), 육식(六識), 육경(六塵), 십팔계(十八界)의 대기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마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두를 참구할 때 철저히 일념(一念)의 정(正)이 이루어져야 오온십팔계(五蘊十八界)의 잡아당기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공부를 하다보면 밝은 빛이 환히 나타나는 등 바깥의 외경계에서 수천만 가지 형태의 변화가 들어오고, 안으로는 내형(內形)의 세계, 즉, 마음의 세계에서 수천만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마(魔)의 변위가 장난을 일으키니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들어켜 "이놈이 무엇인고?" 하고 철저히 의심권을 참구해야 합니다. 팔십 먹은 노인이 외아들 잃어버리고 외아들 찾듯 간절하게 참구해야 합니다. 7년의 가뭄 끝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지나 깨나 잊지 않고 의심하여 참구하면 반드시 확철대오하는 날이 도래합니다.

한암대원 스님 / 신국판 양장본 / 352쪽 / 값 13,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 : 02)737-0695